

코스닥 시장 급락 살펴보기

Quant / Strategist
변준호

02) 3787-2459

ymaezono@hmcib.com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반영

전일 상장사 종목 가운데 약 85%의 종목이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은 급락했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등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이며 조정 폭이 크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가 하락한 것을 비추어볼 때 국내 증시에서 미국 금리 인상 우려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외국인인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 시장은 팔았다.

코스닥 시장, 기술적 반등 국면으로 짧은 반등 가능성

코스닥 시장의 투자심리선이 20까지 하락한데다, 코스닥 관련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저점 연결대에 있어 단기 반등이 유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잭스홀 미팅에서 엘런 발언 이후 급격한 엔저가 나타난 점도 대형주대비 상대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재료다.

대형주대비 단기 낙폭이 컸다는 점도 단기 트레이딩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1개월 및 3개월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됐다. 두 스프레드 모두 역사적인 고점 부근 혹은 고점에 근접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스프레드가 향후 1개월 정도의 높은 상대 성과를 담보하지는 못하는 수준이다. 단순히 두 지수의 스프레드만 보면 9월에 코스닥 시장이 아웃퍼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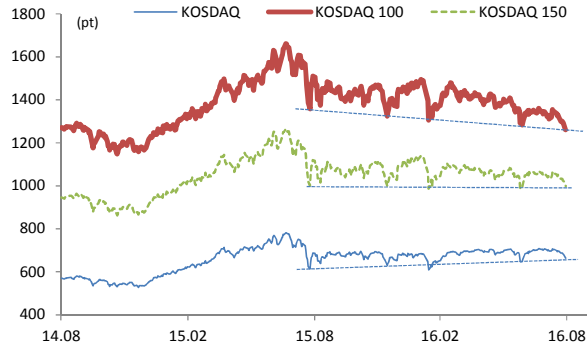
수급, 실적 등 중요한 변수에서 변화 있어야

작년 하반기 이후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관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년간 코스닥 시장이 호조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시장의 이익수정비율은 코스피와 유사하게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1M 기준으로 (-)권에 위치하며 하향 종목수가 더 많음을 보여 준다. 코스피대비 상대적으로 이익수정비율이 열위에 있다. 현재 코스피는 이익수정비율이 (+)권에 있어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느끼는 열위 체감은 더욱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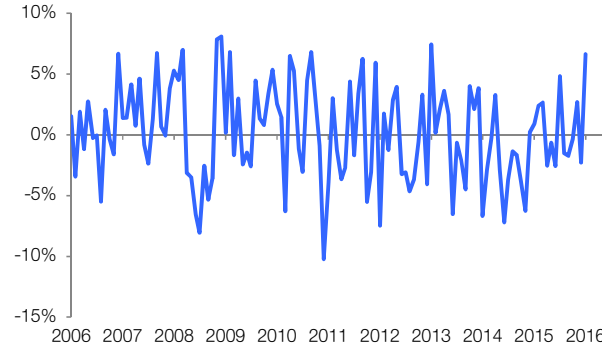
따라서, 의미 있는 반등을 위해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바뀌는지, 실적 전망이 개선되는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1〉 코스닥 및 코스닥 대형주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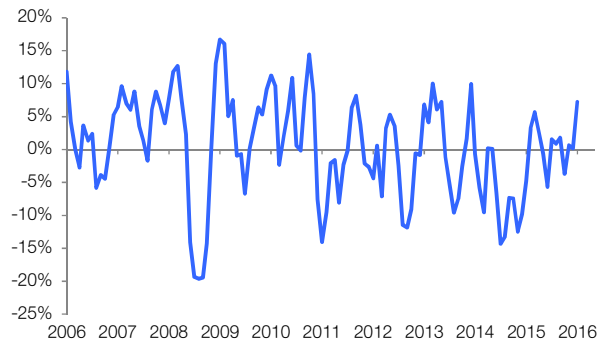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그림2〉 코스피 1M 수익률 - 코스닥 1M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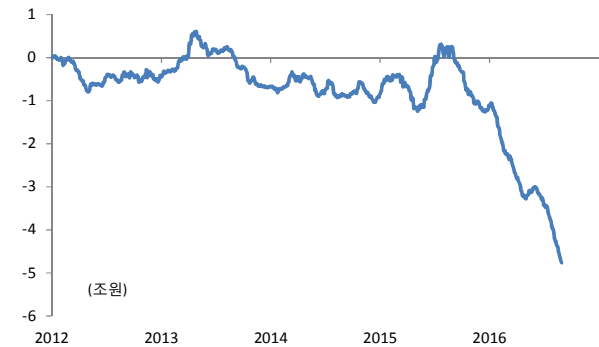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그림3〉 코스피 3M 수익률 - 코스닥 3M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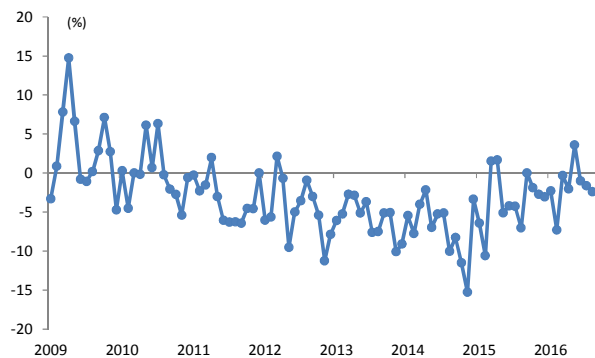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그림4〉 기관 코스닥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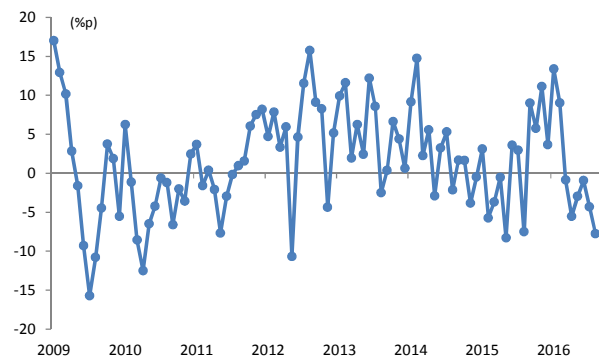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그림5〉 코스닥 시장 이익수정비율 추이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그림6〉 코스닥 이익수정비율 - 코스피 이익수정비율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